



‘멀티골’ 손흥민, EPL 6R ‘이주의 팀’ 최전방 스트라이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과 ‘북런던 데비’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손흥민(토트넘)이 EPL 6라운드 ‘이주의 팀’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올렸다.

사격 연이틀 금빛 총성 울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10m 러닝타깃 혼합 단체전 금
전날 정상 단체전 이어 연속 쾌거
정유진, 개인전서 잇따라 동 획득

한국 사격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10m 러닝타깃 혼합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유진(청주시청), 하광철(부산시청), 곽용빈(충남체육회)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26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1116점을 기록, 5개 참가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전날 이들은 남자 10m 러닝타깃 정상 단체전에서 한국 사격의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하루 만에 또 금빛 총성을 울린 것이다.

러닝타깃 일인자 정유진이 377점을 맞혔고 하광철과 곽용빈이 각각 373점, 366점을 올렸다.

개인 성적에서 북한의 권광일과 공동 2



26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10m 러닝타깃 혼합 경기에서 한국 정유진이 조준하고 있다.

위에 오른 정유진은 ‘남북 대결’ 숲오프에서 고배를 마시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권광일은 은메달이다.

정유진은 전날 정상 개인전에서도 숲오프 끝에 동메달을 획득했다. 러닝타깃은 사냥감처럼 옆으로 움직이

는 표적을 맞히는 종목이다. 표적 속도가 일정한 정상 종목과 무작위로 속도가 달라지는 혼합으로 나뉜다.

수영 황선우 “자유형 200m 통과한 설욕 기대해”

오늘 중국 판잔러와 치열한 승부 예고
남자 축구 키르기스스탄과 16강전
펜싱 여자 에페 단체 금 사냥 나서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한다.

황선우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남자 200m 경기

에 출전한다.

24일 자유형 100m에서는 48초 0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건 황선우는 25일 계영 800m에서 우승, 자신의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27일로 예정된 자유형 200m는 황선우의 주 종목으로 다시 한번 판잔러(중국)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판잔러는 자유형 100m에서 46초 9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계영 800m에

서는 황선우가 뭇 한국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7일 자유형 200m는 황선우와 판잔러가 1승 1패씩 주고받은 상황에서 벌이는 세 번째 대결인 셈이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27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중국 저장성 진화에서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16강전을 치른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은 24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 선발로 출격해 전반 36분까지 뛰면서 몸을 풀었다.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

황에서 이강인의 36분 기용은 역시 단판 승부로 진행되는 16강 이후를 대비한 점검 차원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3연패를 노리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키르기스스탄을 꺾을 경우 8강에서 개최국 중국과 상대할 가능성이 있다.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도 이날 열린다. 에페 개인 결승에서 최인정과 송세라가 한국 선수끼리 결승전을 치른 만큼 이날 단체전 역시 금메달을 바라볼 만하다.

52장의 카드로 두뇌 싸움을 벌이는 브리지 종목은 이날 시작한다.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더욱 안전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국내 지상무기체계를 대표하는 현대로템의 방위사업은 40여 년간
최신에 지상장비를 적기 전력화하여 고객의 신뢰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